



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평균소비성향 감소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2012년 2/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94만 2,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.2% 증가함.

- 비중이 큰 근로소득이 고용 개선에 힘입어 7.5% 증가하였으며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이전소득도 각각 2.5%, 32.1%, 5.1% 증가함.

■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38만 6,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.6% 증가하였으며,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72만 3,000원으로 3.2% 증가함.

- 소비지출 항목별로는 의류·신발(9.3%), 보건(7.0%), 통신(9.3%), 음식·숙박(6.2%) 등이 증가한 반면, 기타 상품·서비스(-1.2%)는 감소함.
- 비소비지출 항목별로는 경상조세, 연금, 사회보험료가 소득증가와 고용확대의 영향으로 각각 8.8%, 7.7%, 6.5% 증가하였으며, 이자비용지출은 가계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10.1% 증가함.

〈표 1〉 가계동향(2인 이상 가구)

(단위: 천 원, %)

구분	'11 1/4	2/4	3/4	4/4	'12 1/4	2/4
소득(A)	3,857.6	3,713.5	3,897.6	3,883.4	4,123.5	3,942.3
가계지출(B+C)	3,176.0	3,004.6	3,190.0	3,082.9	3,358.5	3,109.6
소비지출(B)	2,439.4	2,303.7	2,443.6	2,379.6	2,568.3	2,386.1
비소비지출(C)	736.6	700.8	746.3	703.3	790.3	723.5
처분가능소득 ¹⁾ (A-C)	3,121.1	3,012.6	3,151.3	3,180.1	3,333.2	3,218.8
흑자액 ²⁾ (A-B-C)	681.7	708.9	707.7	800.5	765.0	832.7
흑자율 ³⁾ {(A-B-C)/(A-C)×100}	21.8	23.5	22.5	25.2	23.0	25.9
평균소비성향 ⁴⁾ {B/(A-C)×100}	78.2	76.5	77.5	74.8	77.0	74.1

주: 1) 처분가능소득 = 가계소득 - 비소비지출

2) 흑자액 = 처분가능소득 - 소비지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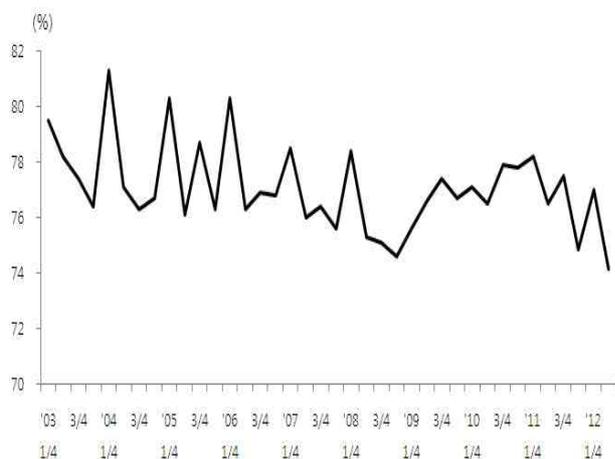
3) 흑자율 = (흑자액/처분가능소득) × 100

4) 평균소비성향 = (소비지출/처분가능소득) × 100

자료: 통계청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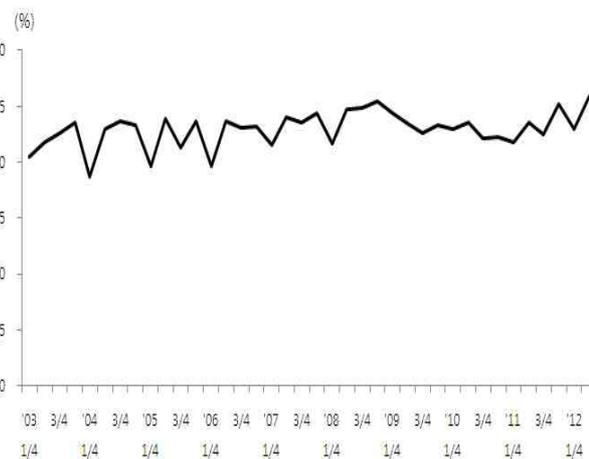
-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21만 9,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.8% 증가하였으나, 평균소비성향은 2.3%p 감소한 74.1%를 나타내어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.
- 또한, 흑자액은 83만 3,000원으로 17.5% 증가하였으며, 저축능력을 보여주는 흑자율은 25.9%로 2.3%p 상승함.

〈그림 1〉 평균소비성향



자료: 통계청.

〈그림 2〉 흑자율



자료: 통계청.

-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의 경우 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하위분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, 소비지출은 3분위를 제외한 모든 분위에서 증가하였으며, 평균소비성향은 모든 분위에서 감소함.

(2012년 2/4분기 가계동향, 통계청, 8/17)